



1989 전국농민대회

- 사진 박용수

## 겨울밤 \_ 신경림

우리는 협동조합 방앗간 뒷방에 모여  
묵내기 화투를 치고  
내일은 장날, 장꾼들은 왁자지껄  
주막집 뜰에서 눈을 던다.  
들과 산은 온통 새하얗구나, 눈은  
핑핑 쏟아지는데  
쌀값 비료값 얘기가 나오고  
선생이 된 면장 딸 얘기가 나오고  
서울로 식모살이 간 분이는  
아기를 뱃다더라, 어떡할거나.  
술에라도 취해볼거나. 술집 색시  
싸구려 분 냄새라도 맡아 볼거나.  
우리의 슬픔을 아는 것은 우리뿐.  
올해에는 닭이라도 쳐 볼거나.  
겨울밤은 길어 묵을 먹고  
술을 마시고 물세 시비를 하고  
색시 젓갈 장단에 유행가를 부르고  
이발소집 신랑을 다루러  
보리밭을 질러가면 세상은 온통  
하얗구나. 눈이여 쌓여  
지붕을 덮어 다오 우리를 파묻어 다오  
오중대 뒤에 치마를 돌려 쓰고  
숨은 저 계집애들한테  
연애 편지라도 띄워 볼거나. 우리의  
괴로움을 아는 것은 우리뿐  
올해에는 돼지라도 먹어 볼거나